

## ○상황시나리오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오후 14시 50분 00시 남동쪽 10km 지역에서 규모 4.9 1차 지진이 발생하고 1차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00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가동을 결정하고,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 15시 30분 남동쪽 10km 지역에서 규모 6.1의 2차 지진이 발생하고, 건물붕괴, 전신주 전도 및 주변 전선이 끊어지면서 인근에 전력공급 및 통신이 중단되었고, 대규모 사상자와 이재민, 도로 및 전기, 가스, 수도관 등 주요 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00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응급복구반 및 관할 읍면동과 유관기관은 소관 재난취약시설, 대응자원 및 유사시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점검하고 관공서 및 지진발생 인근지역 주민 대피를 위한 행동요령 홍보 및 대피방송을 하였다.

특히 지진의 진원지가 온양온천역 인근으로 밝혀진 가운데 15시 45분 온양온천역에서 기차탈선(또는 열차사고 또는 온양온천역에 지진피해를 가정)으로 인한 열차 운행중단, 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00시청은 지진경보 발령과 기차탈선에 따른 피해상황 악화로 인해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가동하였다.

비슷한 시각 한국철도공사는 온양온천역 이용객에게 초기 비상상황을 전파하였고, 16시 00분 온양온천역 주변 이동주민 및 인근 주민 비상상황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피를 지시하였다. 00시 재대본은 역 주변 등 지진피해발생지역 주민대피를 지시하고 00소방서, 00경찰서 등에 주민대피 지원 및 현장, 도로통제 등을 요청하였다. 주변에 위치한 도로가 통제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주민대피 안내를 받아 해당 대피소로 대피하였으며, 장애인, 독거노인(노인), 어린이, 영유아 주부 및 임산부 등의 재난취약자는 응급이송차량 등을 통해 대피하였다. 00시 재대본은 현장 대피주민 구호를 위한 대피소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협업기능 가동을 통한 구호활동을 실시하였다.

오후 18 30분 3차 3.0의 지진이 다시 발생하였으나 점차 안정되며, 공공/민간시설 및 인명피해 현황 파악, 피해지역 조사반 편성 및 투입이 시작되었고,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등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아침 8시 온양온천역 안정화로 지진발생 지역 일대 수습복구 활동이 시작되었다.